

## 총 평

경기상상캠퍼스 입주 단체 심의를 통해  
총 80팀의 지원 신청 팀 중 최종 23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해주신 많은 팀들이 보여준 에너지와 새로운 가능성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과 동시에 스스로와 이웃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보려는 어려운 도전에 심의위원들은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작소(경기상상캠퍼스)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정성으로 제안해주신 모든 기획을 선정할 수는 없었음에 안타까운 심정 또한 갖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심의위원들은 창작소의 앞으로의 전망, 즉 전환의 시대에서 삶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적 창작, 창작, 창업에 적합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입주단체들 간의 협업과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팀이 스스로 하려는 일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지향하는 가치와 단체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 지원해주신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아쉽게 탈락한 팀일지라도 앞으로 경기상상캠퍼스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기를 바라며, 상상캠퍼스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청년문화창작소 입주단체 심의위원회

강원재

김월식

류호봉